

# 8월의 양돈관리 포인트

**8월**은 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시기인 만큼 더위와 관련된 생산성 저하 현상이 두드러진다. 또한 분만복수와 교배복수가 대체로 증가하므로 이와 관련된 제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이다.

## 1. 수태율이 저하하고 있다.

5월까지 비교적 양호한 수태율을 유지하던 농장도 6월 이후부터 서서히 수태율이 떨어지고 있으며 이는 8월 교배와 9월 교배돈에서 정점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늦가을에서부터 초겨울까지 분만율이 저조해진다.

이 시기의 관리 여하에 따라 농장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만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다(여름철에도 수태율 및 산자수를 늘릴 수 있는 관리 방법은 6월호에 이미 소개하였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 가. 교배복수가 증가하는데...

재발, 불임 그리고 유산돈 등의 사고모돈이 증가하게 되어 교배복수는 증가하고 따라서 교배에 소요되는 관리시간과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게다가 사고율을 고려하여 후보돈 교배도 늘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니 더위에 지치고 시간에 쫓겨 교배관리가 전반적으로 느슨해지므로 그 여파로 사고돈이 다시 증가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러나 이렇게 교배복수를 늘린다 하더라도 실제 분만성적은 그리 좋지 않



이재춘 원장

(현별 피그 클리닉, 한국양돈컨설팅그룹)

으며 이로 인한 비용만이 증가하게 된다. 무조건 교배복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한 번의 교배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모돈의 영양상태를 적극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관리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교배복수를 추가로 늘리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 나. 모돈 도태율이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모돈 도태율은 여름철에 가장 높아진다. 즉 임신돈 사고와 발정 지연으로 인한 휴양돈이 늘어나고 더위에 약한 모돈과 함께 도태대상 모돈이 증가하게 된다. 이 때 모돈 도태 기준을 엄격히 적용시켜 적체돈을 줄이고 모돈을 정예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농장에서 과도한 도태율이 부담이 되어 도태대상 문제돈들이 그대로 농장에 남아 자리를 차지하고 있게 된다. 결국 이러한 모돈이 많아지므로 인해 농장의 회전율은 저조하게 된다. 하절기에 모돈의 도태율이 정상적으로 증가하지만 현장에서는 문제돈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려는 예방적인 관리가 선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2. 분만사와 자돈사가 부족해지지 않는가?

여름철에 흔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만사에 임신말기돈이 분만이 임박해서 이동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만삭 모돈이 스트레스를 받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또한 분만틀의 수세 및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분만대기돈이 입식되고

분만을 하게 되므로 신생자돈의 설사와 위축  
돈 발생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는 하  
절기에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비육사에서 성장지연으로 출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그 여파가 자돈사  
와 분만사에 까지 미치게 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분만복수가 많아져서 문제가 발  
생되기도 한다.

최근 이러한 현상을 겪고 있는 농장에서  
포유자돈의 설사와 이유자돈의 설사가 증가  
하고 따라서 위축돈 발생이 증가하는데 이러한 자돈  
들의 방역관리가 자칫 소홀해질 수 있어 가을철 환  
절기에 호흡기 질병 발생이 증가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정확히 교배계획을 수립하여 미  
연에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결국 관리를 강화하는 수밖에 다른 해결방  
안이 없게 된다.

### 3. 비육돈의 증체율은 이상이 없나?

고온환경 하에서 방서대책이 부실하거나 또는 밀  
사가 되고 있는 돈사에 있는 비육돈의 사료섭취량은  
감소하게 된다. 이는 곧 성장지연으로 이어져 비육성  
적의 저하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했던 돈사 운영상  
의 문제점까지 발생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음수공급, 돈사단  
열 및 환기량 증가와 같이 체감온도를 낮추어 주는  
관리가 더욱 요구된다.

### 4. 돼지들이 부패된 사료를 접할 기회 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분만사 모돈의 사료통을 살펴보면 관리가  
양호한 농장이라도 사료통에 먹다 남은 사료가 남아  
있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된다. 또한 고온다습한 기후  
에서 돈사 내부에도 습도가 높아져 각종 병원균과  
곰팡이의 번식이 활발해 진다. 따라서 항상 돼지들이  
부패된 사료와 증가된 병원균, 그리고 곰팡이 독소에  
한시라도 안전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청소와 소독을



▲고온환경 하에서 방서대책이  
부실하거나 또는 밀사가 되  
고 있는 돈사에 있는 비육돈  
의 사료섭취량은 감소하게  
된다.

강화해서 위생적이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  
해 주어야 한다.

### 5. 음수 소독의 필요성을 인식하자.

여름철 고온환경 하에서 음수요구량은 증가하고  
또한 강우량의 증가와 급수배관의 오염으로 인해 수  
인성 전염병의 유입 위험이 증가한다. 실제로 하절기  
에 돼지의 연변 및 설사와 관련되는 요인으로 물을  
통한 병원균의 유입을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다. 따  
라서 물탱크를 정기적으로 청소해 주고 음수소독제  
를 투입해 주는 관리가 요구된다.

이 때 사용하는 음수용 소독제는 희석배율에 맞  
추어서 정확히 투입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 6. 적정 응돈수를 유지하자.

최근에는 인공수정이 널리 확대 보급되어 있어  
과거에 비해 보유응돈의 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  
다. 그러나 아직도 자연교배에만 의존하는 농장도 있  
고 또 인공수정 비율이 비교적 높으면서도 많은 수  
의 응돈을 보유하고 있는 농장도 있다. 이에 따른 문  
제점을 살펴보자.

### 가. 인공수정 비율의 증가로 보유응돈의 수 가 극히 적은 경우

예를 들면 모든 100두 규모의 농장에서 인공수정

비율이 80% 이상이면 웅돈을 1~2두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따라서 계산대로 웅돈의 수를 크게 줄이는 농장이 있는데 이 때 장기적으로 모돈의 발정유도와 배란 극대화에 지장을 초래하여 번식성적이 담보상태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 나. 웅돈의 수를 지나치게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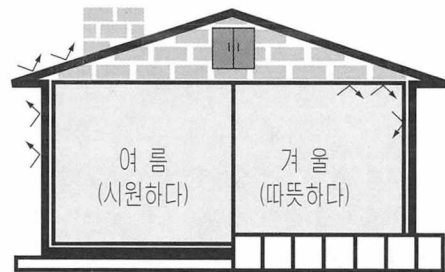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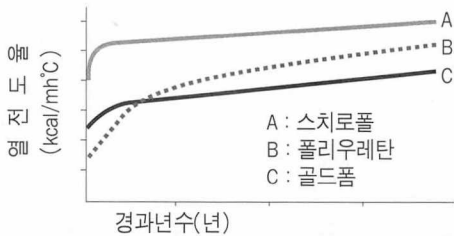
이러한 농장은 과거 한 번쯤 웅돈의 수적인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던 농장일 가능성이 높는데 많은 웅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심적인 위안을 삼고 있다. 예를 들면 모돈 100두 규모에서 10두 이상의 웅돈을 보유하는 경우, 또는 인공수정 비율이 높으면 서도 웅돈수를 자연교배에 맞추어 확보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농장의 경우 웅돈관리에 따른 추가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이고 웅돈 한 마리에 대한 사용횟수가 줄어들게 되므로 인해 오히려 수태율 및 산자수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즉 2 주 이상, 심지어 한달동안 1번도 사용 않는 웅돈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된다. 이렇게 장기 휴식중이었던 웅돈으로 교배시 수태율 및 산자수의 저하는 충분히 예견이 된다.

결국 부족하지도, 과하지도 않게 항상 적당한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평범한 진리가 생각나는 대목이다.

적정웅돈 두수를 확보하고 웅돈사용 현황판을 적극 활용하여 특정웅돈의 과도한 사용 및 장기휴양 웅돈의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양돈**

## 21세기 첨단단열재 골드폼 (전국총판)



골드폼을 사용했을때의 효과

### 세계로 수출하는 골드폼은

최고의 단열성, 빠르고 편리한 시공성으로 축산농가에 인기가 좋습니다.



인증번호: 2013550 49871

#### 자매품

갈바룸, 조립식판넬  
스티로폼



### 서울이피에스산업

전화 (0331)225-4980(대)

팩스 (0331)238-0423

휴대폰 017-360-8899